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급진 이슬람의 기독교인 공격, 오히려 온건 무슬림들의 개종 부추긴다**



나이지리아에서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민간인 학살이 반복되면서 이에 이슬람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 뉴스(MNN)가 최근 소개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지난 11월 말, 나이지리아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하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수십 건의 공격으로 549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10/40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언노운 네이션즈(Unknown Nations)의 그렉 켈리 대표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무슬림의 악랄한 공격이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 벌어지면서 온건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하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민간인 학살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켈리 대표는 “딸이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여성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하는지 보면서 자신의 딸이 그런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며 “이에 따라 무슬림들의 세계관이 도전을 받으며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은 곧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이어진다. 켈리 대표는 “복음이 제시되면 그들은 사랑과 평화, 화해의 메시지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복음을 갈망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개종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은 심각한 결과, 심지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밝은 미래라고 믿는 것에 대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켈리 대표는 말한다. 켈리 대표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개인의 개종 활동이 노출되면 위험한 공격에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켈리 대표가 소속된 언노운 네이션즈는 “문맹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다른 장애물도 있다”며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오디오 성경”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11-13)**

하나님, 이슬람 무장단체의 학살로 근심하던 나이지리아에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게 하시고, 그 땅의 무슬림들이 그런 증인을 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께로 담대히 나아오게 하소서. 이 땅에 이슬람의 거짓을 계속 드러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오디오 성경과 매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 예수 생명이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새해 첫날 지구촌 인구 80억 넘는다··올해 7,500만 늘어

전 세계 인구가 1월 1일에 처음으로 80억 명을 넘길 것이라는 미국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구는 총 7,500만 명이 증가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23년 한 해 인구 성장률은 1%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구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대 10년간 미국의 인구 성장률은 4%를 밑돌며 미국 역사에서 인구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린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 새해 첫날 미국에서는 9초마다 한 명이 태어나고 9.5초마다 한 명이 사망하지만, 이민자 유입이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라고 미 통계청은 내다봤다.

###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나(하박국 2:14)

하나님, 2024년에 들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선 이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많은 나라가 저조한 출생률과 인구 성장률로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사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전쟁, 이주민과 난민의 발생 등으로 계속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선교 완성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교회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열방에 가득하게 하소서.

### ▲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오하이오 법 시행

소셜 미디어 운영자들이 계정을 만들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오하이오 법이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아메리칸페이스가 전했다.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는 이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데이브 법무장관은 “이 법은 부모들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자녀들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따라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르면, 부모들은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계정을 승인해야 하고 “검열 또는 콘텐츠 절제 기능” 목록을 제공 받아야 한다.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무분별한 콘텐츠로부터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법을 발의하고 시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다음세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어른세대가 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주의 진리만이 온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법과 제도 안에서 보호받은 청소년들이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을 반역하며 방탕한 길로 행하게 만드는 세대를 거슬러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들로 자라게 해주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노라”  
모리타니, 세레식 동영상으로 체포된 기독교인 모두 석방**



모리타니 당국은 지난해 11월 세레식 동영상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처벌을 촉구한 이후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모두 석방했다고 해당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이 밝혔다. 지난 달 29일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기독교 지도자들은 석방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hristian Daily International)에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원하는 것을 믿되, 은밀하고 신중하게 믿으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 해피엔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독교 지도자는 최소 15명에서 많게는 18명의 기독교인이 가족과 함께 체포됐다가 지난해 12월 18일까지 모두 풀려났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에는 전도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당국은 이슬람을 제외한 모든 공개적인 신앙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소셜 미디어에 세레식 영상이 게시된 후 기독교인을 살해하라고 요구하는 시위에서 비롯됐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모리타니에서는 외국인만 비 무슬림 종교 예배를 열 수 있으며 시민이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모리타니 국민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이슬람 단체가 사적인 공간에서 종교 모임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인구의 98%가 수니파 무슬림, 1%가 시아파 무슬림이며 헌법이 이슬람을 국민과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지정하고 있는 모리타니에서 배교 또는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490만 명의 인구 중 기독교인은 1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공인된 교회는 건물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전도를 할 수는 없다”며 “비공식적인 정부의 요구로 인해 비이슬람교 예배는 소수의 공인된 기독교 교회로 제한됐다”고 말한다. 모리타니는 오픈도어가 선정한 2023년 세계 감시 국가 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20위에 올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5-7)**

하나님, 얼마 전 무슬림들의 적대감과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체포되었던 모리타니의 기독교인들이 모두 석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타니 교회가 이번 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믿음의 확실함과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담대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슬람 국가 모리타니에서 이 일이 복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 주께 나아와 구원을 얻는 목마른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시리아 내전으로 작년 4,300여 명 사망

2023년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4,300여 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영국에 있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해 시리아 내전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포함해 총 4,36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3,825명보다 535명 많은 숫자다. 민간인 사망자는 여성 241명과 어린이 307명을 포함해 총 1,88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피살된 사람은 900명이었고 나머지는 친미 쿠르드족 민병대인 시리아민주군(SDF), 친이란 세력, 이슬람국가(ISIS) 등에 의한 사망자라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1,8-9)**

하나님, 2011년에 발발한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작년에도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리아 정부와 무장세력들의 악하고 헛된 계획이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오랜 분쟁으로 혼란뿐인 이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길을 열어 주시고, 도사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 이후를 고민할 지혜를 주사 복음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내전을 도구 삼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꾸미는 사탄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멸하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시리아에 사망이 그치고 생명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 ▲ 에스토니아, 구소련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

에스토니아가 구소련 국가로는 처음으로 새해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을 인용, 국내 언론들이 2일 전했다. 에스토니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이 새해인 1일부터 시행돼 동성 커플은 정식 혼인 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법 개정은 작년 6월 의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에스토니아는 2013년 동성 커플의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번에는 정식 혼인 신고까지 허용했다. 연립 정부는 그간 동성 결혼 합법화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에스토니아 인권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는 53%로 나타났다. 10년 전 조사(34%)에 비해 19%p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19-20)**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 법을 개정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에스토니아 정부를 꾸짖어 주셔서 악한 법을 폐지하게 해주십시오. 성적 타락과 세속적 가치에 각 사람의 영혼과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따르며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 가운데 행하라”  
Z세대 다음은? ...‘완전한 온라인 첫세대’ 알파가 온다



전원이 21세기에 태어난, 명실상부한 디지털 세대인 알파세대(Generation Alpha)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일(현지시간) ‘획기적 세대’(A landmark generatio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Z세대의 다음세대로 떠오르고 있는 알파세대를 조명했다.

알파세대라는 용어를 만든 사회학자 마크 매크린들에 따르면 2010-2024년에 태어났거나 태어날 알파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밀레니얼세대(1980-1994년 출생)의 자녀인 알파세대는 아직 태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미래 영향력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나온 지표만으로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알파세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디지털이다. 악시오스는 “완전한 첫 온라인 세대”라고 평가했다. 알파세대의 가장 어린아이들은 아이패드 출시되던 해에 태어나 ‘아이패드 키즈’로 불리기도 한다. 알파세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 노출돼 왔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와이펄스(YPulse)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 부모의 79%는 자녀가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44%는 자녀가 적어도 매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고 했다.

와이펄스의 콘텐츠 책임자인 메릴리 블리스는 알파세대가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 중심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애플과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인 ‘시리’, ‘알렉사’,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 등 AI에도 친숙하다.

알파세대의 범위를 규정한 매크린들은 “알파세대는 AI와 인간의 경계가 흐릿한(blurring) 세계만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알파세대를 화상 수업 등 온라인 상호작용에 더 익숙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 등은 팬데믹 이후 결석률 증가, 학업 성취도 저하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 아버지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1:3,7)**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문물 속에서 성장한 알파세대가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을 따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가운데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세대가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힘써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알파세대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배우고, 발전된 기술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일본 노토반도 지진, 사망자 73명으로 늘어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을 뒤흔든 진도 7의 강진으로 인해 현 내 사망자가 3일 오후 7시 현재 73명으로 늘어났다고 일본 TBS가 보도했다. TBS뉴스에 따르면 지역별 사망자 수는 와지마시에서 39명, 주즈시에서 23명, 나나미오시에서 5명, 아나미즈초에서 2명, 노토초에서 2명, 하쿠이시에서 1명, 시가초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강진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현 이즈미야 마스히로 스즈시장은 2일 재해 대책본부 회의에서 “괴멸적인 피해”라며 “스즈시에는 총 6,000세대가 사는데 4,000-5,000세대는 자택에서 살 수 없다.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상황이 나빠 피난민에게 물자를 나눠주기 어렵고 단수가 이어져 화장실 등 위생 상태도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시편 33:18-20)

하나님,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일본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에 힘겨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이때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을 도움과 방패로 삼을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소서. 구조와 복구에 힘을 더하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터가 흔들린 절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진정한 기쁜 소식을 영접하여 소망으로 일어서는 일본이 되게 하옵소서.

### ▲ 영국 감리교, 남편·아내 등 ‘성별에 따른 용어 피하라’ 권고

영국감리교회가 최근 ‘남편’이나 ‘아내’ 등 성별에 따른 용어를 피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 언어 지침’을 펴냈는데 그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들을 제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교단은 2021년 동성 결합의 축복을 승인하고 동거 부부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단 대변인은 “감리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은 예배 중에 어떻게 언급되기를 원하는지 목사와 논의할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칼빈 로빈슨 신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비판이론이며, 이는 네오마르크스주의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며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행을 따라 이데올로기의 방식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든지 하라. 감리교회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 5:16-20)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속히 떠나, 육신의 정욕을 위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포용이라는 말로 오히려 주님을 악하게 만드는 영국감리교단에 엄한 경고를 내려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권해야 할 교회가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을 회개하여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주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단과 영국 사회를 진리로 회복시켜 주소서.